

너무 잘 돼도 큰일, 대박 터진 현지 반점의 '속제'

'현지에서 먹힐까?', 오픈부터 만석 달성



첫 장사부터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다. 잘 팔리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은 너무 잘 돼서 큰일이다'로 바뀔 정도였다.

8일 첫 방송된 tvN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에서는 이연복 셰프, 배우 김강우, 서은수 코미디언 허경환이 중국 현지에서 '현지반점'을 여는 모습이 공개됐다.

짜장면은 중국 작장면을 토대로 한국식으로 변한 음식. 작장면이 중국식 된장을 베이스로한 짬뽕한 면 요리라면, 짜장면은 춘장을 베이스로한 달달한 면 요리이다. 이에 46년 중식 명장 이연복 셰프는 한국식 짜장면이 원조적인 나라 중

국에서 먹힐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인 멤버들이 이연복을 비롯한 김강우, 서은수, 허경환이었다. 영화 '식객'에서 수려한 칼 솜씨를 연기한 김강우, 온갖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은수, 재치와 말솜씨를 겸비한 허경환이 모였고, 각각 면담당, 고명 담당, 흡사빙 겸 지배인 역을 맡게 됐다.

중국에 도착한 네 사람은 현지 입맛 알아보기부터 시작했다. 중국 중식 맛집에서 여러 음식들을 맛본 후 그에 따른 대체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 막상 작장면을 먹은 이

들은 "짜장면이 더 맛있다"며 시작도 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80인분이라는 대량의 재료를 손질할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다. 방대한 양이 하루 만에 팔리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선한 재료를 고른 의미가 없었다. 서은수는 "잘 팔려서 매일 이렇게 장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생각지 못한 대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첫 장사는 오픈부터 대박이었다. 처음 보는 푸드트럭, 이연복 셰프의 화려한 워킹, 짜장소스의 맛있게 즐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불러모았고 금세 입소문이 퍼져 만석을 달성했다. 주문은 밀려 들고 자리가 없어 먹지 못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시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손님을 끌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했으나 중국편에서는 재료가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물론 첫 장사에 완관이 된 것은 기뻐할 일이었으나 잔돈 문제, 미리 계산한 손님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부수적인 문제가 따랐다.

너무 잘 돼서 큰일난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이 갖가지 문제 해결 후 완관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까. 2회가 더 공급해지는 이유다.

방탄소년단, 9월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1위...2위 워너원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2018년 9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방탄소년단, 2위 워너원, 3위 뉴이스트W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18년 9월 9일까지 측정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110,532,263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보이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측정했다. 지난 8월 브랜드 빅데이터 88,496,475개와 비교하면 24.90% 증가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다.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지수는 보이그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

량을 측정할 수 있다.

2018년 9월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방탄소년단, 워너원, 뉴이스트W, 세븐틴, 엑소, NCT, 더 보이즈, 비투비, 인피니트, 박방, 스트레이 키즈, 시아니, 몬스타엑스, 슈퍼주니어, MXM, 빅스, 펜타곤, 워너, 아이콘, 아스트로, 신화, 동방신기, 비스트, JBI, 젝스키스, SF9, 하이라이트, 골든차일드, 2PM, BAP 순으로 분석됐다.

1위, 방탄소년단(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뷁, 정국) 브랜드는 참여지수 5,654,088 미디어지수 5,532,416 소통지수 6,058,023 커뮤니티지수 7,845,72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5,090,251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14,611,602와 비교하면 71.71% 상승했다.

2위, 워너원(김다니엘, 박지훈, 이

대취, 김재환, 오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브랜드는 참여지수 820,336 미디어지수 4,291,840 소통지수 3,010,383 커뮤니티지수 4,935,6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3,058,168로 분석되었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12,602,046와 비교하면 3.62% 상승했다.

3위, 뉴이스트W(JR, Aron, 백호, 렌) 브랜드는 참여지수 132,440 미디어지수 1,764,352 소통지수 254,925 커뮤니티지수 2,824,70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976,422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052,405와 비교하면 142.47% 상승했다.

4위, 세븐틴(에스쿵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브랜드는 참여지수 411,048 미디어지수 1,066,752 소통지수 1,104,770 커뮤니티지수 2,008,07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90,64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5,062,401와 비교하면 9.14% 하락했다.

5위, 엑소(수호, 찬열, 카이, 디오, 백현, 세훈, 시우민, 레이, 첼, 타오, 루한, 크리스) 브랜드는 참여지수 372,680 미디어지수 1,376,000 소통지수 1,431,482 커뮤니티지수 1,180,84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361,00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185,921와 비교하면 4.18% 상승했다.

'뜻밖의Q' 뜻밖의 퇴행 기획...17인 예능 아이콘이 아깝다



국주, 돈스파이크, 박성광, 이석훈(SG워너비), 행주(리드파워), 산들(BIA4), 케이(러블리즈), 주이(모모랜드)가 출연해 '이모티콘 운동회'를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뜻밖의 Q'는 외국인 포맷 판매를 목표로 세우고 Q글로벌 홍보대사를 뽑았다. 멤버들은 애정도 테스트, 세계상식, 영어 테스트, 외국인 호감도 조사 등에 임했다.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나라 국기와 수도 맞히기 문제, 영어 스피치 테스트를 받았다. 전현무가 단연 앞섰지만, 외국인 호감도 조사에서 이수근이 토폴을 받아 Q글로벌 홍보대사로 뽑혔다. 이수근은 "열심히 하겠다"며 진지하게 소감을 밝혔다.

멤버들은 그동안 '뜻밖의 Q'에서 활약했던 게스트들을 모두 불렀다. 이들은 은지원, 팀 장수원, 이국주, 산들, 전현무, 박성광, 주이, 부승관, 지상렬, 이석훈, 솔비, 유세운, 팀 돈스파이크, 러블리즈, 케이, 박휘순으로 나뉘어 '이모티콘 운동회'에 나섰다. 이수근은 이에 "뜻밖의 Q' 홍보 영상을 만들려 왔다. 아주 중요한 자리다. 우리의 운동회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멤버들은 첫 라운드에서 게스트들은 지압판을 돌려 이모티콘 퀴즈를 맞춰야 했다. 1라운드는 전현무

팀이 승리했다. 2라운드는 '큰집사람' 탈을 쓰고 릴레이로 퀴즈를 가져와 이모티콘 퀴즈 추리를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 유세운팀은 돈스파이크의 활약으로 주현미의 '짜사람'을 맞춰 풀지의 반란을 일으켰다.

3라운드에서는 4인 5자 레이스로 이모티콘 풀이를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

유세운 팀은 뜻밖의 호흡으로 빠른 시간 안에 퀴즈를 풀었다. 부승관 팀도 박진영 '하니'의 안무를 알아낸 끝에 진출했다. 유세운과 부승관 팀은 출연료 2배를 얻어냈다. MVP는 이국주가 뽑혔다. 전현무는 너무 힘든 촬영 감도에 "논산 생각나"라고 말했다.

게스트들이 고생은 했지만, 방송은 큰 공감을 자아내며 힘들었다. 이날 산들, 주이, 케이 등 아이돌부터 돈스파이크, 이국주, 박성광 등 최근 예능 아이콘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 MC들도 전현무, 이수근 등 당대 최고의 MC들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Q'는 이들에게 90년대 유행하던 '큰집 사람들' 탈을 씌워 시청자들을 허탈하게 했다. 1500명의 SNS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나올 만한 더 재미있는 기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선택한 건 결국 '과거형'이었다.

이런 '뜻밖의 Q'의 기획력에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중. 섭외력은 훌륭하지만 늘 기획력에서 한 발 아쉬움을 자아내는 '뜻밖의 Q'가 과연 좀 더 트렌디한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첫방 '대화의 희열' 김숙, 속 시원한 웃음제조기



'대화의 희열' 첫 회 게스트는 '가모장', '쑤크러시'로 사랑받는 개그우먼 김숙. 김숙은 기존의 정해진 틀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도 속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대화의 희열'을 통해 생애 첫 단독 게스트로 나선 김숙은 솔직한 이야기로 시선을 끌었다.

소설가 김종혁은 '숙이집이 왔다'고 요즘 시대가 원하는 김숙의 캐릭터를 언급했다. 김숙은 "계획적인 것은 없었다. 다른 프로그램엔 연애 할 때 어떤 캐릭터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한다고 말했다. 조신하게 여성스럽게 한 번 해보자고 하더라. 너무 깜짝 놀랐다. 내가 살아온 것과 너무 달랐다. '운전은 내기해이지, 어디 운전대를 남자가 잡냐고 말했다. 연락이 안 오더라. 다음에도 또 섭외가 왔는데 비슷했다. 천상 여자를 원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개그계 문화에 대해서도 "저도 좀보처럼 내려오는 것을 배웠고 하면 안 되는 개그를 많이 했다. 접대에 누우면 문뜩 생각이 난다. 참 너무 창피했다. 너무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 때는 아예 몰랐다. 누구도 몰랐다. 옛날 방송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반성했다.

다.

지금을 잘나가는 김숙이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일이 없어서 게임을 시작한 거다. 상을 95년도에 대학개그제 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게 2018년 KBS 연예대상 여자 최우수상이다. 20년 정도를 쉬고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다"며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를 전했다. "한 2년 갔다. 집에 PC를 3~4대를 놓고 했다. 저를 만나려면 집으로 와야 했다. 그때 송은이 씨가 정신병원에 데려가 생방송을 핑크넷 적이 있다. 시간 개념이 없었다보니까 10시 라디오 생방송이었는데 일어나니까 10시 30분이더라. 주변 분위기가 너무 싸하더라. 부채중이랑 문자가 많이 와있더라. 현실과 완전 단절이었다"고 덧붙였다.

슬럼프를 이겨낸 김숙은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제 최종 목표는 잘먹고 잘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어진 일을 잘 하면 좋겠다. 다들 요즘에 일 많아서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힘든 것 보다는 신기한 게 더 많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전했다.

다.

지금을 잘나가는 김숙이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일이 없어서 게임을 시작한 거다. 상을 95년도에 대학개그제 은상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게 2018년 KBS 연예대상 여자 최우수상이다. 20년 정도를 쉬고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다"며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를 전했다. "한 2년 갔다. 집에 PC를 3~4대를 놓고 했다. 저를 만나려면 집으로 와야 했다. 그때 송은이 씨가 정신병원에 데려가 생방송을 핑크넷 적이 있다. 시간 개념이 없었다보니까 10시 라디오 생방송이었는데 일어나니까 10시 30분이더라. 주변 분위기가 너무 싸하더라. 부채중이랑 문자가 많이 와있더라. 현실과 완전 단절이었다"고 덧붙였다.

슬럼프를 이겨낸 김숙은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제 최종 목표는 잘먹고 잘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어진 일을 잘 하면 좋겠다. 다들 요즘에 일 많아서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힘든 것 보다는 신기한 게 더 많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음력 8월 1일)

<p>▶ 쥐 ▶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서 하나가 돼 소리라도 질러보라. 그는진 가슴속이 확 트일 것이다. 오늘 하는 일이 앞날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듯. 쥐, 양, 용, 토끼띠와 닮은 우렁침.</p>	<p>▶ 용 ▶ 따가운 태양이 싫어 시원한 그늘을 찾는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이 고달픈지 모르나 오늘이 지나면 그 힘겨움이 행복으로 변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라.</p>	<p>▶ 원숭이 ▶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고,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어려웠던 일이 성사했음을 알리는 소식이 곧 온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지금 그 자리에서 후회하면 후퇴하는 길이다. 3, 5, 12월생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더 힘들어진다.</p>
<p>▶ 개 ▶ 오늘 만나는 사람과 멀리 가지 말라. 자칫 몇 개월 뒤 걱정거리와 연결될 듯. 진실로 그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북쪽은 피하라. 여성이라면 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 정말 후회한다.</p>	<p>▶ 돼 ▶ 남쪽에 가는 일은 삼가라. 후회하는 날이 된다. 북쪽으로 목적지를 정하면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이롭다.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함이 어떨지. 뱀, 양, 말띠와 닮음이 있다. 언쟁을 조심하라.</p>	<p>▶ 닭 ▶ 문은 고달파도 들은 있겠다. 투지와 노력으로 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상대가 당신 눈빛에 굴복하리라. 1, 2, 12월생은 승전고를 울리지만, 사랑에는 짜증스러운 날이 될 듯. 평소보다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p>
<p>▶ 호랑이 ▶ 타인에게 줄 것이 있으면 빨리 쥐 버리라. 능력 없다 미루다 화근이 온다. 청탁으로 만나는 2, 5, 9월생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내거나 과장해 말하면 허사가 된다.</p>	<p>▶ 말 ▶ 기다리는 마음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 내일을 위해 참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웃음꽃이 피리라. 말, 닭, 돼지띠가 힘겨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친구 간 의견 차이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p>	<p>▶ 개 ▶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화난 모습을 보이지 말라. ○, ㅈ, ㅎ 생씨가 방해자가 될 수 있다. 7, 8, 9월생 투기적 행동은 길게 하면 빈손이 된다. 노란색을 피하라.</p>
<p>▶ 토끼 ▶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감추는 것이 좋을 듯.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기다리면 기본 소식이 있을 것이니 말없이 그대를 기다리라. 4, 7, 10월생 사람이 금전 부탁을 하면 주라. 미래에 큰 보답을 받는다.</p>	<p>▶ 돼 ▶ 인덕이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이 없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이다. 외로워도 홀로서기를 시도하라. 단단하게 전진하라. 5, 9, 10월생은 믿으라. 깊은 마음씨가 숨어 있다. ㅈ, ㅅ, ○ 생씨는 갖길 운전 삼가라.</p>	<p>▶ 개 ▶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인내심을 갖고 임하라. 일확천금을 노린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허황한 꿈에서 벗어나라. 가족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힘들 때 친지나 가족밖에 없음을 상기하라. 3, 6, 8월생 근신함이 좋겠다.</p>